

‘부끄러움[恥]’의 역설, 감성의 동역학*

— 단종복위운동과 임병양란기 시조를 중심으로 —

조태성**

〈국문초록〉

‘부끄러움[恥]’이라는 용어는 대개 ‘수치(羞恥)’라는 용어와 혼용되며, 보통 부정적이며 고통 받는 정서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런 감정의 촉발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그 영역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국가적인 것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양상을 지닌 ‘부끄러움[恥]’이 문학적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사회적인 역동성을 획득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들을 살펴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부끄러움[恥]’을 기저로 제작된 시조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恥]’의 배경은 ‘사회’ 혹은 ‘국가’와 관련한 것들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선 초 ‘단종복위운동’과 조선 중기 ‘임·병 양란’으로 인해 촉발된 시조들이 주요 분석 대상이었다.

전자의 경우, 사육신이 낳긴 시조를 통해 그들이 가진 ‘부끄러움[恥]’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남으로써 공감을 형성해 갈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개 ‘사육신 시조’들을 두고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가치가 바로 절의 혹은 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을 촉발하는 매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글에서는 그 매개를 ‘부끄러움[恥]’으로 보았다.

후자의 경우엔 ‘사무친 치(恥)’와 그로 인해 촉발하는 ‘분(憤)’의 양상을 임·병 양란기를 거치면서 제작된 시조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치욕 혹은 모욕이 직접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들지만 그럴 수 있는 심적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함을 알 수 있었다. 흥익한의 시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끄러움[恥]’은 명백히 사적인 마음 행위로 치부되는 경향이 크긴 하지만, 그것은 결국 대사회적이며, 대국가적인 것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마음상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6).

** 전남대학교 HK연구교수

태이자 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끄러움[恥]’의 부정적 영역이 긍정적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부끄러움[恥]’의 전제는 언제나 정의로운 것으로의 지향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부끄러움[恥]’은 드러내야 의미 있는 행위가 된다. ‘드러난 치(恥)’야말로 집단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감이 어떤 장(場), 이른바 ‘공감장(共感場)’으로 형성될 때 그 사회적 효용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주제어 : 부끄러움[恥], 공감, 발분, 시조, 감성

1. 머리말

‘치(恥)’란 말 그대로 부끄러움 혹은 그런 마음이다. ‘수(羞)’ 또한 치(恥)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수(羞)는 ‘모욕을 당하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강한 반면 치(恥)는 ‘도(道)에 어긋남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현재는 대부분 ‘수치(羞恥)’라고 혼용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치란 다른 사람들을 볼 낮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상태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수치는 감정의 범주에서 보면 불쾌와 관련한 부정적 경향에 속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무언가에 실패했거나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이를 자신의 전반적, 안정적 결합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¹⁾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수치심은 때때로 죄책감과 대비되기도 한다. 그러나 각 감정의 과장 측면에서 두 감정은 차이가 있다. 죄책감이 내적 양심의 가책을 원동력으로 하여 자기 수렴으로 그치고 만다면, 수치심은 대중 또는 사회에 대한 공감의

1) James W. Kalat 외, 민경환 외 옮김, 『정서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7, 303쪽.

장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물론 수치심의 기저 또한 내적 양심의 가책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그 감정의 촉발이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그치지 않고 공적 영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치심은 보다 대사회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전제의 설정이 가능하다면 이 지점에서 바로 개인의 ‘부끄러움[恥]’이 대사회적인 ‘부끄러움[恥]’으로 전환 가능해지리라 본다.

물론 ‘부끄러움[恥]’의 촉발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그 영역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국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 글이 주목하는 비는 이러한 양상의 ‘부끄러움[恥]’이 적어도 문학적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사회적인 역동성을 획득하느냐를 살펴보는 것에 있다. 즉 어떤 방식으로 부정의 상황을 긍정의 상황으로 역전시키는 감성의 힘, 즉 감성의 역동성을 발휘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들을 살펴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부끄러움[恥]’을 기저로 제작된 시조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恥]’의 배경은 ‘사회’ 혹은 ‘국가’와 관련한 것들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선 초 ‘단종복위운동(端宗復位運動)’과 조선 중기 ‘임·병 양란’으로 촉발된 시조들이 주요 분석 대상이 된다. 논의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 ‘경술국치(庚戌國恥)’와 관련한 기타 텍스트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보통 부정적이라고 치부되는 ‘부끄러움[恥]’이라는 심리적 기제가 어떤 방식으로 혹은 어떤 양상으로 감성의 긍정적 역동화를 이끌어내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부끄러움[恥]’의 긍정적 역동성

앞서 살폈듯이 ‘부끄러움[恥]’이라는 용어는 대개 수치(羞恥)라는 단어와

혼용된다. 이러한 수치 혹은 수치심은 거부되고, 조롱당하고, 노출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고통 받는 정서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여기에는 당혹스러움, 굴욕감, 치욕, 불명예 등이 포함된다. 우리의 전통사회는 선비 문화, 즉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규범적인 행동들을 하도록 만들었다. ‘염치’, ‘명분’, ‘낮짖’ 등등이 그 중요한 핵심어휘들이다.²⁾

그런데 이러한 수치가 단순히 개인적인 부끄러움에서 머물지 않고 사회와 연결될 때, 즉 공분(共憤)을 촉발하는 심리적 기제로 발전할 때 그것은, 변혁의-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한 감성적 매개로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 초 단종복위운동은 세조반정(世祖反正)이 그 원인이 되었다. 이때 성삼문, 유응부 등은 대의(大義)가 무너지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고 이를 복원하기 위해 복위 거사를 모의했던 것이다. 이때 이들이 느낀 치욕, 그것은 수오지심(羞惡之心)과도 다르지 않다.

염치(廉恥) 또한 ‘부끄러움[恥]’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마음행위이다. 염치란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즉,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폐를 끼치거나 할 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상태를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하여 무언가 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모몰염치(冒沒廉恥)’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염치없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무언가 행하려는 의지의 발로인 셈이다.

이 염치라는 용어는 본래 『관자』 「목민편」에 나오는 사유(四維)³⁾의 핵심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유 중 셋째가 염(廉)이고, 넷째가 치(恥)이다. 여기에서 먼저 ‘염(廉)’은 불폐악(不蔽惡)이라 하였으니, 이는 자신의 악을 감추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비관적 설명보다는 자

2) 김요한, 「수치심 문화와 죄의식 문화」, 『범한철학』 제64집, 범한철학회, 2012, 308쪽.

3) 何謂四維 一曰禮 二曰義 三曰廉 四曰恥 禮不踰節 義不自進 廉不蔽惡 恥不從枉.

신의 잘못이나 실수 등을 감추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낙천적인 해설이라고 본다.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나 실수가 거대악이 될 가능성은 낮으며, 그것들이 어떤 악의 덩어리로 진화할 가능성 또한 낮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곧 염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치(恥)’는 불종왕(不從枉)이라고 하였다. 굽히는 것을 좇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의 의미를 좀더 확대해 보면 결국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 일과도 상통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돌아보는 감정에서 생겨난다. 우리는 때로 무언가 불확정적인 것을 떠올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계면쩍어하는 모습을 종종 경험한다. 이 순간이 바로 ‘치(恥)’가 발현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감정은 대개 그 불확정적인 것에 대한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자각할 때 일어난다. 곧 성찰에 다름 아닌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염치를 차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사소한 이들의 사소한 행위들인 만큼 크게 드러나 보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런 순간 자신을 다잡는 기회로 삼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파렴치(破廉恥)를 목격한다. 파렴치란 염치를 깨뜨리는 일이니, 곧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하는 뻔뻔스러운 행위를 가리키는 뜻이 되겠다.

『맹자』에는 ‘수오지심(羞惡之心), 의지단야(義之端也)’라는 구절이 있다. 악한 것에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것이 의(義)를 바로 잡는 시작이라는 의미이다. 개인의 인격을 무시당하거나 집단의 공공성을 훼손당하면 부끄러운 마음에 의분(義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한 의분을 기반으로 그 상황에 저항하는 행위가 바로 절의(節義)가 되는 것이다.

『천자문』에는 ‘절의염퇴(節義廉退) 전패비휴(顛沛匪虧)’라는 문구도 있다. 염퇴(廉退)는 염결겸퇴(廉潔謙退)의 줄임말로써, 청렴하고 겸양함을 의미한다. 전패(顛沛)는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하고, 비휴(匪虧)는 말 그대

로 훼손하지 말리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사람의 절조와 정정당당한 행위, 청렴과 겸양의 훌륭한 덕행은 거꾸러질 때, 즉 좌절하게 될 때라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절의염퇴 전패비휴'는 사람이라면 의를 행함에 있어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부끄러움(恥)'에서 촉발된 절의는 결국 정의와 양심에 의해 추동되는 용기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역으로 이 과정에서 양심은 절의를 행하기 위한 마음 상태, 즉 감성 추동 인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심을 일종의 의식 상태로 파악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양심은 단지 좋은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때 정의는 개인의 가치인가 아니면 공공의 가치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개인의 양심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어느 순간 그것들의 가치 충돌 혹은 상황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의는 말 그대로 도덕적으로 행해야 할 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상황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바를 가리킨다. 의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도덕적인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⁴⁾

윗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행해야 할 바와 행해서는 안 되는 바'의 충돌, '마땅히 취해야 하나 또한 취할 수 없는' 상황의 모순이 양심에 의해 판단되는 정의가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이다. '치(恥)'의 원인으로서는 어떤 범법자를 처벌하는 일은 마땅히 취해야 할 바이며 도덕적으로도 행해져야 하는 바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주체의 양심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공공

4) 최준식,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사계절, 1998, 137~138쪽.

의 가치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주체의 양심은 종종 무력화되기도 한다. 오히려 그 양심이 무력화되도록 스스로 제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말선초의 회고시(懷古詩) 등이 이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한다.

만약 정의가 한마디로 의(義)의 준수라고 한다면, 의의 발현을 위한 양심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공공연히 무력화되는 양심을 목도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 양심에 따른 어떤 결정조차도 내리기 힘든 지경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의로운 행위를 할 때, 우선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결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종류의 일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의 감정이 의(義)의 단초인 이유이다. 오직 그럴 때에만 사람들은 행하기에 적절한 일이 무엇인지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계발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 이제 명확한 질서와 순서라는 개념이 여기서 타당성을 갖게 된다. 만약 사람들이 갈등이나 자원 한계로 인하여 하고 싶은 혹은 해야만 하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다면, 물고기보다는 곰 발바닥을 취하겠다는 맹자의 말에서 분명해지듯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가 분명해짐에 틀림없다. 누구나 본성적으로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인(仁)을 보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켜야 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부끄러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동물과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부끄러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도덕적 완성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 부끄러운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또한 자신의 행위를 다른 사람의 성취와 비교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개선시키기 위한 하나의 자극이 되는 것이다.⁵⁾

위 글에서는 의로운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먼저 해서는 안 될 일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의 결정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을 양심이라고 말할 수는

5) 이광세, 『동양과 서양 두 지평선의 융합』, 도서출판 길, 1998, 205~206쪽.

없을까.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양심에 거리끼는 바가 있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양심을 닦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끄러움의 감정을 지우는 것이며, 그런 행위가 바로 주체의 도덕적 완성으로 가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중용』에서는 의를 옳다는 의미에서 의(宜)라고 했다. 이것은 곧바로 우리가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의(時宜)라는 용어로 직결된다. 시의란 때에 맞는 것, 올바른 것, 마땅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중(時中)이라고도 표현된다. 의를 지켜야 한다는 규범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이 규범을 어떤 상황에서든 천편 일률적으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그 상황의 가운데[시중(時中)]’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⁶⁾

생육신이나 사육신 등이 행한 일이 정의였는지 아니었는지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마땅히 해야 할 바’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윗글을 참조하여 그 상황을 적용해 본다면, 그에 대한 판단의 기준점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시의(時宜)’가 바로 그것이다. 즉, 양심에 따른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이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적용 방식이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양심은 사적 영역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그 자체로 정의로움일 수는 있지만, 정의로운 행위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과정이란 ‘공감장(共感場)’⁷⁾의 형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형성의 과정이 주체의 감성 발현 과정과 다름없음은 물론이다. 이와 관

6) 최준식, 앞의 책, 138쪽.

7) 공감장(共感場)이라는 용어는 현재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인문한국연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성연구의 주된 키워드이다. 크게 말하면 개인의 감성이 소통되고 공유되면서 대사회적인 긍정적 감성을 형성시킬 수 있는 유·무형의 공간을 말한다.

련하여 경술국치(庚戌國恥)와 관련한 절명시(絶命詩)를 한 수 살펴보자.

일찍이 나라 위한 작은 공도 없었으니	曾無支厦半椽功
그저 인을 이룰 뿐 충정은 아니라네	只是成仁不是忠
이제 겨우 윤곡을 따르는데 그칠 뿐	止竟僅能追尹穀
부끄럽구나, 진동에 이르지 못하나니	當時愧不躡陳東

위의 시는 매천(梅泉) 황현(黃玹, 1855~1910)이 지은 <절명시>⁸⁾ 중 네 번째 수이다. 여기에서 화자는 먼저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것이 없다고 자술한다. 그러면서 선비로서의 인(仁) 나아가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 목숨을 놓을 뿐 진동(陳東)과 같이 충(忠)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는[恥]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치(恥)’는 문면에 보이는 ‘진동의 충’에 있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국치(國恥)가 그 원인이다. 국치라는 시의(時宜)에 따라 그가 선택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바로 자결이었다. 매천이 망국의 상황에서 취한 자결이 소극적인 저항이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아쉬움이라는 수용자적 입장에서의 감상을 토로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분노가 “정의감에 기반한 복수심 혹은 그릇된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욕구와 관련이 깊다.”⁹⁾면 매천에게 있어 그런 욕구의 충족은 자결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앞서도 살펴보지만 매천은 단순히 봉건적인 혹은 선비적인 충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죽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글을 아는 사람으로서, 즉 지식

8) 이 작품은 칠언절구의 한시로, 1910년 경술국치 당시 매천이 국권이 완전히 피탈된 것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총 4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김택영이 편찬한 『매천집』 권5에 수록되어 있다.

9) J.M. 바바렛 지음, 박형신·정수남 옮김, 『감성의 거시사회학』, 일신사, 2007, 213~248쪽, 참조.

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죽음이었다.

“죽음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붓’만으로는 일체와의 대결에 너무도 무력했고, 앞으로도 역시 무력해지리라. 이것이 시인의 절망이었다. 이때 그는 총을 들고 나서기에는 이미 늙었고, 원래 총을 들 만한 소양도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옳은 길을 간 것이다.”¹⁰⁾ 그런 까닭에 매천은 행동으로 관찰할 만한 투쟁적인 체질과 사상을 지니지 못했던 인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결국 그가 절명시를 남기며 죽음을 택한 이유는 선비적인 시인으로서의 한계 때문이었다고 해석되는 것이다.¹¹⁾

물론 이런 결과가 정의라는 대의를 꺾었다는 것은 아니다. 양심과 시의에 의해 발현된 정의는 꺾이는 법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세삼 감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진 삶의 어떤 추상적인 동경(憧憬)을 불러일으키는 힘 때문만이 아니다. 감성을 추동하게 하려는 주체의 의지가 인간으로서의 가장 긍정적 삶 그 자체의 동경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본디 긍정성을 지향하는 감성은 쉽게 꺾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가끔 꺾이는 듯 보이는 감성적 현상들은 실은 꺾이어 멈춘 것이 아니라 멀리 돌아 나가는 과정에서 잠시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감성의 긍정적, 도덕적 발현체로서의 정의 역시 꺾이는 법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끄러움(恥)의 역설’은 감성의 이러한 긍정적, 도덕적 발현체로서의 시적(詩的) 기능을 의미한다. 흔히 부정적 감정이라고 일컬어져 왔던 수치가 오히려 정의를 촉발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용어인 것이다. 더불어 그렇게 촉발된 정의는 어떤 행동을 야기하고, 그러한 행동을 함께 하거나 혹은 지켜보면서 공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10) 임형택, 『황매천의 시인의식과 시』, 『창작과 비평』 19호, 창작과 비평사, 1970, 792쪽.

11) 조태성, 『의와 인의 감성적 경계, 절명시의 비극적 숭고미』, 『한국고시기문화연구』 32집, 한국고시기문화학회, 2013, 255~256쪽.

바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감성의 동역학’에 다름 아닌 것이다.

3. ‘드러난 치(恥)’와 공감의 형성, 사육신의 시조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국가의 주요 이념으로 작동했다. 유교는 다른 어떤 이념보다 대의를 중시했기에 당시 조선의 양반들은 그것에 어긋나는 일 혹은 국가의 존망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를 실현하지 못하거나 실현될 수 없을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많았다. 물론 타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더 많았다. 단종복위운동과 임·병양란, 그리고 그와 관련된 텍스트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단종복위운동과 관련하여 ‘부끄러움[恥]’의 역설 양상을 당시 제작된 시조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왕조사에 있어 세조의 즉위와 이에 따른 단종의 폐위는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는 비극적 사건 중 하나이다. 당시 수양대군이 우의정 김종서를 시작으로 여러 중신들과 안평대군을 죽이면서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며 시작된 왕위찬탈은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건국된 조선의 도덕성과 기강을 흔들여 놓은 사건이었다.¹²⁾ 그렇기에 왕위찬탈에 반발하는 생육신(生六臣)과 사육신(死六臣)이라 불리는 단종을 지지하던 중신들이 남긴 시조에는 자신들이 충정을 받쳐 지지하던 임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통탄함과 치욕의 감정이 짙게 스며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 먼저, 이들 중신이 지은 작품은 아니지만, 당시 단종의 폐위와 관련한 작품 한 수를 살펴보자.

千萬里 머나 먼 길에 고은 님 여희웁고
내 막음 돌 디 업서 냇ᄃ에 안자시니

12) 박노준, 「사육신 시조의 절의」, 『세종학연구』 제4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9, 5쪽 참조.

저 물도 너 안 고향여 우리 밤길 네눗다 (3897)¹³⁾

위의 시조는 왕방연(王邦衍)의 작으로, 그는 영월에 유배중인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질 때 그 책임을 맡은 인물이다. 당시 세조의 신임을 받던 왕방연이 기에 의금부도사로서의 임무를 저버릴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종의 처지에 비참함을 느끼며 돌아오는 길 어느 냇가에 앉아 읊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단종’이라는 배경을 지우고 보면, 이 작품은 사랑하는 남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애정시조로도 읽힐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의 사정은 간단치 않다. 왕방연은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한 다음 귀양 가 있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자 그 책임을 맡아 수행해야 하는 의금부도사였다. 그러나, 비록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인 세조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자신도 선비로서의 대의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세조의 왕위찬탈에 저항할 용기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안에서부터 쌓이는 내면의 수치는 막을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영월행을 계기로 이와 같은 시조가 제작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못한 화자의 슬픔과 그에 따른 부끄러움, 혹은 수치스러움이 이 텍스트의 이면을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房 안에 헛는 燭불 놀과 離別 訶엇관디
 것호로 눈물 디고 속 타는 줄 모로노고
 우리도 저 燭불 갖호야 속 타는 줄 모로노라 (1659)

위는 사육신 중 한 명으로 박팽년, 성삼문과 함께 단종복위운동을 일으켰다가 잡혀 국문을 당하다 처형당한 이개(李垲, 1417~1456)의 작품이다.

13) 박을수 편저,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책에 실린 작품의 가번을 의미한다.

투옥되던 상황에서 쓰인 시조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세조의 왕위찬탈로 인해 자신이 섬기던 단종이 폐위당하고, 이를 막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통탄과 치욕의 마음을 촛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촛불은 본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다. 화자 또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촛불을 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어둠은 단순히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밤의 어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자신을 둘러싼 불의와 그것을 막지 못한 치욕으로서의 어둠이다. 그런 어둠을 몰아내고자 켜는 촛불이었건만 이 어둠은 도무지 물러나지 않는다. 나아가 그 어둠을 타개할 방법조차 모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내 자신이 촛불이 되었다 해도 이런 상황은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종장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된다. 율분과 치욕의 감정이 극대화 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초장과 중장에서 촛불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수치의 감정을 곱씹었다면, 종장에서는 촛불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로 인해 품고 있던 율분과 수치의 감정을 극대화 시킨다. 이런 동일시가 바로 자신이 겪고 있는 비통함과 치욕을 달리 해결할 방도를 찾을 수 없다는 절망을 야기하며 감정의 극대화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首陽山 바라보며 夷齊를 恨호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도 호는 것가
 아모리 푸새엿 거신들 그 님 사히 닛더니 (2434)

이 몸이 주겨 가서 무어시 될고 호니
 蓬萊山 第一峰에 落落長松 되야이서
 白雪이 滿乾坤홀 제 獨也青青 호리라 (3273)

위의 두 작품은 모두 성삼문(成三問, 1418~1456)의 작이다. 작자는 세

중 때 학자이자 충신으로 사육신의 한 사람이다. 지조와 절개가 대단한 인물로, 조카를 내쫓은 세조를 '나으리'라 부르며 그가 준 녹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먼저 〈수양산 바라보며〉는 은나라의 충신으로 상징되는 백이와 숙제에 비견하여 자신의 지조와 절개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초장의 '수양산'은 우선 중국의 산으로 볼 수도 있다. 더불어 수양대군으로도 볼 수 있어 중의적인 표현이다.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가 은나라를 망하게 하자 수양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은 주나라에서 나는 곡식을 먹지 않는다는 지조를 보여주면서 산나물만을 먹다가 죽은 충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화자는 다른 관점에서 '이제'를 바라본다. 화자는 수양산을 중의적으로 세조 즉 '수양대군'으로 비유하면서, '이제'에게 굶어 죽을지언정 어찌 주나라에서 나는 산나물은 먹었느냐며 비판한다. 주나라에서 나는 산나물 또한 어찌 주나라 것이 아니겠냐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나라를 망하게 한 주나라 음식을 먹은 것 자체가 수치스런 일이라는 의미이다. 화자는 이 작품을 통해 그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몸이 죽어 가서〉에서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더 이상 '수치'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는 없다. 애초에 이 작품은 단종복위운동 실패 이후 처형장에 끌려갈 때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까닭에 오히려 죽음을 앞둔 이의 초탈 혹은 무념의 어떤 경지만을 보는 듯하다. 그러나 작시의 배경을 염두에 두면, 이 작품에서는 당장 죽을지언정 자신의 절의만은 절대 꺾이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화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는 있다. 성삼문에게 있어 자신이 느낀 수치는 굴복을 넘어 죽음마저도 초월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절의와 염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대부로서 그로 인해 촉발된 '부끄러움[恥]'이 자신의 내면에서 그치지 않고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의(義)의 원천으로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간 밤에 부던 바람 눈 서리 치단 말가
 落落長松이 다 기우러 가노미라
 흐물며 못 다 편 곳치야 날러 므슴 흐리오 (92)

이 작품 역시 사육신이었던 유응부(兪應孚, ?~1456)의 작이다. 세조의 왕위찬탈을 풍자하고 있으며, 그런 난리를 맞게 된 현실에 대해 한탄하며 체념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더불어 화자는 왕위찬탈도 모자라 갖은 횡포를 부리면서 조정의 중신들을 살해한데다 단종의 복위를 위해 움직이려던 젊은 인재들마저도 없애려 하는 수양대군 일파를 막아내지 못한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듯하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이른바 ‘사육신 시조’들을 두고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가치가 바로 절의 혹은 충(忠)이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절의나 충의 정신이 어디에서부터 비롯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가 드물다. 대개 그 이유로 유교의 이념만을 이야기하는 정도에 그치고 만다. 그렇다면 앞서 살폈듯이 이러한 가치들을 촉발하는 매개 중의 하나로 ‘부끄러움[恥]’을 들어보는 것은 어떤가.

‘부끄러움[恥]’은 명백히 사적인 마음 행위로 치부되는 경향이 많긴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것은 결국 대사회적이며, 대국가적인 것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마음상태이자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즉, ‘부끄러움[恥]’의 부정적 영역은 긍정적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치(恥)’의 전제는 언제나 정의로운 것으로의 지향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부끄러움[恥]’은 드러내야 의미 있는 행위가 된다. ‘드러난 치(恥)’야말로 집단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감이 어떤 장(場), 이른바 ‘공감장(共感場)’으로

형성될 때 그 사회적 효용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4. ‘사무친 치(恥)’와 발분(發憤)의 촉발, 임·병 양란기 시조

조선이 겪은 대표적인 두 전쟁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다. 그러나 이들의 양상에 큰 차이가 있는데, 우선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은 승리한 전쟁이고, 병자호란은 패배한 전쟁이었다. 그런 점에서 임진왜란은 전쟁의 상처를 물리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반면 병자호란은 전쟁의 물리적 상처 뿐 아니라 패배 자체에 대한 심리적인 상처도 컸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조선이 신봉하던 중화주의적 세계 질서가 파괴되고 소중화인 조선이 소위 오랑캐 국가인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신하국으로 전락하게 된 것¹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부끄러움[恥]’이라는 심적 기제가 작동한다. 병자호란을 계기로 조선은 오랑캐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치고, 나아가 왕자까지 인질로 잡히게 되었다. 기존까지의 대외적 자존심이 모두 해체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사대부들에게 있어 ‘부끄러움[恥]’을 촉발하는 계기들이 모두 한 지점에 수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임란의 경우 국가 내적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합리적인 의식이 작품들을 통해 나타난 것과는 달리 호란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적개심을 불태우는 모습이나 국가의 치욕에 대한 비감을 나타내는 작품들이 생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인조 14년(1636)에 청나라는 20만 대군을 보내 조선을 초토화시켰고, 인조는 마침내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된다. 이 병자호란은 결국 조

14) 전재강, 『고시조에서의 정치의식 표출의 양상』, 『시조학논총』 27집, 한국시조학회, 2007, 59쪽, 참고.

선의 두 왕자, 즉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볼모로 삼아 청나라로 끌려가게 만
들었다. 다음 작품을 보자.

靑石嶺 지나거나 草河溝 어디딕오
胡風도 춤도 출샤 구즌비는 무스 일고
뉘라셔 내 行色 그려내여 님 계신디 드릴고 (4041)

이 작품은 병자호란 당시 봉림대군이 청석령을 지나면서 지었다고 알려진
작품이다. 이 노래의 핵심 어구는 ‘호풍’과 ‘구즌비’이다. ‘호풍’은 말 그대로 나
라를 잃게 한 난리를 말함이고, ‘구즌비’는 그런 난리 끝에 처한 치욕과 분노
의 감정을 상징하는 시구가 된다. 이런 모습은 작품의 종장에서 더 구체적으
로 찾아볼 수 있다. 즉, 이 노래의 마지막에는 특이하게 수사 의문법이 구사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의 작품에서 본 것처럼 ‘춧볼로도 어둠을
몰아낼 방도를 찾지 못했던 것’처럼 ‘출구조차 찾을 수 없었던’ 그의 치욕과
분노에 어떤 대상을 일부러 특정하지 않고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출구조차 찾을 수 없었던’ 그의 치욕과 분노는 훗날 조선의 정치를 뒤바꾸
는 계기가 된다. 두 왕자가 조선으로 돌아온 뒤 청나라의 문물을 접하고 그들
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소현세자와는 달리 봉림대군은
조선에 들어와서도 당시에 느낀 모욕감과 분노를 잊지 못해 반청 사상을 그대
로 고수하기에 이른다. 결국 ‘출구조차 찾을 수 없었던’ 치욕에 대해 그 대상
을 특정하지 않았던 것은 그 치욕이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한
다. 즉, 이 노래를 통해 치욕 혹은 모욕이 직접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들지만
그럴 수 있는 심적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함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출구조차 찾을 수 없었던’ 치욕은 그때 이미 출구를 찾았었는지도 모른
다. 그래서 모진 인내가 가능했을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또한 받아

들였을 지도 모르는 것이다.¹⁵⁾

풍설 석거 친 날에 못노라 北來 使者
 小海 容顏이 언제나 치오신고
 故國의 못 죽는 孤臣이 눈물 계워 흐노라 (4425)

이 거사 어린 거사 잠말 마라스라
 漆室의 悲歌를 누라서 슬퍼 하리
 어디서 濁酒 한 잔 얻어 이 실람 풀가 하노라 (3212)

병자호란의 결과 인조는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고, 아들인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볼모로 잡혀 가는 치욕을 당한다. 이 시조에는 당시 이정환(李廷煥, 1613~1673)이 볼모로 잡혀 가 있는 두 왕자를 걱정하면서 국치(國恥)를 당하고도 죽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함으로써 병자호란으로 인한 자신의 수치와 비감을 드러낸다.

먼저 〈풍설 섞어친 날에~〉의 초장과 중장에서는 당시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에 대한 안부를 묻고 있다. 풍설로 상징되는 추위는 사실 이런 염려의 마음을 확대하는 장치일 뿐이다.¹⁶⁾ 낯선 곳에서 고생하고 있을 두 왕자에 대한 염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지키지 못했던 불가항력은 그래서 작자를 더욱 수치스럽게 하고 만다. 이런 화자의 ‘부끄러움(恥)’은 개인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대의 상황과 맞물려 국가적인 ‘치(恥)’, 이른바 국치(國恥)로, 그리고 비분강개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아 어린 것아~〉의 초장에서는 ‘잠말’이라는 시어에서 그의 심정을 엿

15) 조태성, 『텍스트를 통해 본 발분 메커니즘』, 『인간·환경·미래』 제10호,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소, 2013, 82쪽. 참고.

16) 조태성, 『감성 발현체로서의 시조의 역동성』, 『시조학논총』 42집, 한국시조학회, 2015, 105쪽.

볼 수 있다. 화자는 국치를 당하고서 그밖에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으며, 그 어떤 말인들 치욕을 씻어낼 수 없음을 자탄한다. 그러면서 앞선 전쟁인 임진왜란에서 같은 치욕과 비분을 느꼈을 칠실¹⁷⁾과 그의 〈우국가(憂國歌)〉를 호명한다. 더불어 그에 비견하는 자신의 치욕과 비분을 어찌 할 수 없어 탁주 한 잔에 풀어볼까 하지만, 그것 또한 ‘부끄러움[恥]’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님을 자신도 이미 자각하고 있음이다.

壁上에 걸린 칼이 보피가 낫단 말가
 功 업시 늙어 가니 俗節 업시 문지노라
 어줍어 丙子 國恥를 써서 불가 흥노라 (1767)

이 작품은 병자호란에 대한 치욕과 울분을 노래하고 있다. 김진태(金振泰)¹⁸⁾는 병자국치라는 국가적 치욕에 대해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수치와 울분을 직접적으로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¹⁹⁾ 벽상에 걸어 둔 칼

17) 이덕일(李德一, 1561~1622). 함평 출신의 충절인물로, 字는 敬而, 號는 漆室이며, 본관은 함평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열심히 닦아 이름을 떨쳤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의주로 피난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공은 학문을 그만두고 무예를 닦아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리고 정유재란을 당하여서는 함평민과 피난민들을 모아 의병을 조직하여 함평의 孤山과 東幕 등지에서 왜적을 무찌르며 당시 해전에서 고군분투하던 충무공 이순신을 도왔다. 그 후 절충장군이 되고, 곧이어 병조좌랑, 통제영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이후 광해군의 난정이 계속되자 낙향하여 은거하다가 인목대비의 폐출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1622년 병으로 사망하였다.

18) 생몰년도 미상. 호는 군헌(君獻). 조선 영조 때 가인(歌人)이자 서리.

19) 사실 이 작품은 병자호란 당사가 아닌 조선 영조 때 지어졌다. 이 시기 문학은 대개 실생활과 관련된 것이거나, 강호 혹은 자연문학의 기초가 더욱 강화되던 추세였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작가인 김진태는 가인(歌人)이자 하급관리로서 지난 전쟁을 상기하거나 또는 당시의 치욕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작품 성향들을 통해 볼 때, 이러한 작품을 제작하게 된 배경으로 작가 자신의 의인적, 무인적 기질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은 어느 순간 녹슬어 가고 있고, 자신 또한 국치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늙어만 가고 있음을 수치스러워 하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화자는 칼을 매만지는 일만은 멈추지 않는다. 언젠가 그 ‘부끄러움〔恥〕’을 깨끗이 씻을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에 다시금 결기를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主辱臣死라하니 내 몬져 죽어져서
 魂歸古國하미 나의 願이러니
 어즈버 胡塵이 蔽日하를 츠마 어이 보리오 (3732)

이 시조는 홍익한(洪翼漢, 1586~1637)²⁰⁾의 작으로, 그는 병자호란 당시 최명길(崔鳴吉) 등의 화의론(和議論)을 극구 반대한 인물이다. 당시 두 아들과 사위가 적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아내와 며느리도 적에게 붙들리자 바로 자결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그에게는 늙은 어머니와 딸 하나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결국 화의가 성립된 이후 그는 청나라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 작품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켜온 홍익한의 굳건한 지조와 결국에는 화의를 맺게 된 현실에 대한 ‘부끄러움〔恥〕’의 감정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초장에 사용된 ‘주욕신사(主辱臣死)’라는 시어는 중국 춘추시대 8국의 역사를 기록한 『국어(國語)』의 「월어(越語)」와 『한비자(韓非子)』에서 유래한 성어이다. 먼저 「월어」에는 ‘남의 신하인 사람은 임금이 근심하면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임금이 치욕을 당하면 목숨을 버리고 치욕을 씻어야 한다(爲

20) 홍익한은 병자호란 당시 최명길의 화의론을 강력하게 반대한 인물이다. 병자호란이 끝난 후, 홍익한은 척화론의 주모자로 지명되어 윤집, 오달제와 함께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가게 된다. 이들은 심양에서 모진 고문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척화의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에는 참형을 당하고 만다. 바로, 이들을 일러 삼학사라고 한다.

人臣者 君憂臣勞 君辱臣死.’는 월나라의 충신 범려의 말이 전한다. 『한비자(韓非子)』에도 ‘군주가 치욕을 당하면 신하는 괴로워하니 상하가 서로 근심을 함께한 것이 오래되었다(主辱臣苦 上下相與同憂久矣).’라는 말이 나온다. 즉, 화자는 초장에서 임금의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음으로써 임금의 치욕을 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조가 겪은 삼전도에서의 치욕적인 항복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볼 때 화자에게 있어 병자년의 치욕적 사건은 죽어서라도 갚고 싶은 수치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그 사건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부끄러움[恥]’의 감정이 얼마나 사무쳤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이어지는 중장과 종장에서는 ‘죽어 혼이라도 고국에 돌아가는 것이 소원’이라거나 ‘오랑캐가 고국의 해를 가리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이는 죽어서라도 그 치욕을 씻어내겠다는 화자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무친 치(恥)’가 ‘분(憤)’을 일으키고, 그것이 화자의 의지를 다시 결연하게 만드는 감성의 작동들 목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 공교롭게도 임진왜란을 대상으로 치욕을 갚고자 하는 내용의 작품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 작품을 보자.

猿山을 발로 박차 對馬島을 連陸하고
 長劔을 빼어 들며 康湖을 쫓아 들어
 丈夫의 百年 羞恥를 값과 불가 ㅎ노라 (3125)

위는 숙종~영조 당시 무신인 민제장(閔濟章, ?~1729)이 1711년에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갈 때 지었다고 알려진 작품이다. 일설에 당시 대마도에서 풍랑을 만나 위태롭게 되었을 때 혼자 일행을 구출하여 무사히 다녀왔다고 한다. 작품 종장의 ‘백년 수치’는 이 작품의 배경이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초·중장에서 일본을 지칭한 듯 보이는 ‘원산(猿山)’이나 일본의 내해를 지칭한 듯 보이는 ‘강호(康湖)’ 등의 시어도 이를 암시한다. 결국 이 작품은 중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임진왜란 때 당했던 수치를 갚고 싶은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끄러움(恥)’은 시공을 초월한다. 민제장의 위 작품은 임진왜란 이후 약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지어졌다. 그 계기가 비록 대마도에서의 풍랑이었을지는 몰라도 한 국가의 무신으로서 지난 전쟁의 국치를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치유되지 않은 ‘부끄러움(恥)’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것이 대사회적인 특정 사건인 경우 그것은 ‘사무친 치(恥)’가 되기도 한다. 비록 ‘시의(時宜)’와는 상관없을지 몰라도 ‘부끄러움(恥)’의 기억은 역사 속에 특별한 공감의 장을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다.

5. 맺음말

‘부끄러움(恥)’이라는 용어는 대개 수치(羞恥)라는 단어와 혼용된다. 이러한 수치 혹은 수치심은 거부되고, 조롱당하고, 노출되고, 다른 사람들로 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고통 받는 정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부끄러움(恥)’의 촉발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그 영역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국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 글이 주목한 바는 이러한 양상의 ‘부끄러움(恥)’이 문학적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사회적인 역동성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즉 어떤 방식으로 부정의 상황을 긍정의 상황으로 역전시키는 감성의 힘, 즉 감성의 역동성을 발휘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들을 살펴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부끄러움(恥)’을 기저로 제작된 시조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恥)’의 배

경은 ‘사회’ 혹은 ‘국가’와 관련한 것들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선 초 ‘단종복위운동(端宗復位運動)’과 조선 중기 ‘임·병 양관’으로 인해 촉발된 시조들이 주요 분석 대상이었다.

전자의 경우, 사육신이 남긴 시조를 통해 그들이 가진 ‘부끄러움[恥]’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남으로써 공감을 형성해 갈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개 ‘사육신 시조’들을 두고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가치가 바로 절의 혹은 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을 촉발하는 매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글에서는 그 매개를 ‘부끄러움[恥]’으로 보았다.

후자의 경우엔 ‘사무친 치(恥)’와 그로 인해 촉발하는 ‘분(憤)’의 양상을 임·병양랑기를 거치면서 제작된 시조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치욕 혹은 모욕이 직접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들지만 그럴 수 있는 심적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함을 알 수 있었다. 홍익한의 시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끄러움[恥]’은 명백히 사적인 마음 행위로 치부되는 경향이 크긴 하지만,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것은 결국 대사회적이며, 대국가적인 것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마음상태이자 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끄러움[恥]’의 부정적 영역이 긍정적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부끄러움[恥]’의 전제는 언제나 정의로운 것으로의 지향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때의 ‘부끄러움[恥]’은 드러내야 의미 있는 행위가 된다. ‘드러난 치(恥)’야말로 집단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감이 어떤 장(場), 이른바 ‘공감장(共感場)’으로 형성될 때 그 사회적 효용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요한, 「수치심 문화와 죄의식 문화」, 『범한철학』 제64집, 범한철학회, 2012, 308쪽.
- 박노준, 「사육신 시조의 절의」, 『세종학연구』 제4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9, 5쪽.
- 박을수 편저,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 이광세, 『동양과 서양 두 지평선의 융합』, 도서출판 길, 1998.
- 임형택, 「황매천의 시인의식과 시」, 『창작과 비평』 19호, 창작과 비평사, 1970, 792쪽.
- 전재강, 「고시조에서의 정치의식 표출의 양상」, 『시조학논총』 27집, 한국시조학회, 2007, 59쪽.
- 조태성, 「감성 발현체로서의 시조의 역동성」, 『시조학논총』 42집, 한국시조학회, 2015, 105쪽.
- _____, 「텍스트를 통해 본 발분 메커니즘」, 『인간·환경·미래』 제10호,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소, 2013, 82쪽.
- _____, 「의와 인의 감성적 경계, 절명시의 비극적 숭고미」, 『한국고시가문화연구』 32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3, 255~256쪽.
- 최준식,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사계절, 1998.
- J.M. 바바렛 지음, 박형신·정수남 옮김, 『감성의 거시사회학』, 일신사, 2007.
- James W. Kalat 외, 민경환 외 옮김, 『정서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7.

〈Abstract〉

The paradox of ‘Shame[恥]’, the dynamics of emotions

Jo, Tae-Seong

Ignominy are ashamed or that mind. It is noted that this article ‘shame[恥]’ will do for obtaining the social dynamics in some way in the literary aspect. To investigate this aspect, this article took the text produced on the basis of ‘shame[恥]’ to be analyzed.

First, through the Sayuksin[死六臣]’s Sijo[時調], ‘Shame[恥]’ they have confirmed the room to go to form a sympathy by revealing without hidden. It is worth evaluating in common with these Sijo is that of justice or loyalty. But the parameters of evaluation described what people are rare. In this article, I saw the parameter to ‘shame[恥]’.

Second, through the Sijo created in the war of the middle age of Chosun Dynasty, I examined the aspect of ‘anger’ which sparked a shame[恥]. Thus shame[恥] is hard to change the world directly. However, the possibility that it can also be a psychological instrument was found to be sufficient.

In conclusion, ‘shame[恥]’ is clearly greater tendency to dismiss as a private act of the heart. But, I understood that the negative region of ‘shame[恥]’ can be converted to positive region. At this time, The premise of ‘shame[恥]’ should always be oriented to justice.

Key words : Shame[恥], Ignominy, Sympathy, Anger, Sijo[時調], Emotion

이 논문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16년 1월 4일부터 2016년 1월 10일까지 심사를 하고,
2016년 1월 1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